

▣▣▣ **업계동정** ▣▣▣

LG電線(株), 히팅케이블 美 특허 등록

LG電線(株)(代表 : 權炆久)는 최근 미국 연방 특허청으로 부터 히팅케이블 제조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

히팅케이블은 별도의 전기장치 없이 케이블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시스템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주로 발전소 배관이나 석유화학단지, LNG 인수기지, 도로와 활주로의 스노우 멜팅 등에 사용하는 케이블이다.

LG전선이 이번에 미국 연방특허청의 특허를 받은 히팅케이블은 65℃와 110℃급 두 종류로 전기적 안정성이 우수하고 복잡한 구조의 시스템에도 설치가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이 케이블은 또 제조 공정에서 기존의 히팅 방식을 전류를 이용한 가열방식과 병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고분자의 열전기적 안정성 문제를 해결했다.

생산 물량의 50% 이상을 유럽과 동남아 등지에 수출해 오고 있는 LG전선은 이 회사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영국의 히트 트레이스(Heat Trace)사를 통해 유럽지역 진출에는 문제가 없으나 각종 특허 문제로 미국 시장 진출에는 장애를 겪고 있었다.

LG전선은 이번 특허 획득을 계기로 미국 시장은 물론 일본 등 해외 시장을 다변화 해 본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朝興電機産業(株), 저전류 정밀용접기 개발

용접기 전문생산업체인 朝興電機産業(株)(代表 : 崔伯奎)가 저전류형 이산화탄소 용접기를 개발해 판매한다.

동사가 2년간 2억여원을 들여 개발한 이 용접기(제품명 OK-350)는 박판을 용접할 때 필요한 저전류 용접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표면철판이나 가전제품 등 얇은 판을 용접할 때는 50~60A 정도의 낮은 전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정밀도가 중요하므로 보통 가격이 높은 인버터 방식의 용접기를 쓰고 있다.

조흥전기는 이 제품은 가격이 낮은 사이리스

터 제어방식을 채택했지만 저전류 용접성능이 인버터 방식의 용접기와 비슷해 외국산 고급 용접기의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용접기는 복잡한 제어회로를 개선해 소형 경량화 했다.

또 절전형 스위치를 내장했기 때문에 무부하 때 전력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연간 200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설정된 조건과 다른 전압·전류

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해 초보자도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용접을 한 후에 원추형 입자가 형성되지 않고 불꽃이 튀는 양도 적다”며 “가격에 비해 우수한 용접 성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흥전기는 이 제품을 최근 인도에 약 100대 수출했으며 미국·중국에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國際電機(株), 소용량 정류기 시판

전원장치 전문업체인 國際電機(株)(代表 : 金俊哲)는 최근 48V·50A급의 집단전화국용 소용량 정류기(모델명 HPS-50/50)를 개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앞으로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운용하게 될 집단전화국을 겨냥한 소용량 정류기로 PWM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기존 제품과는 달리 전류공진형 방식을 채용해 전력효율을 크게 높였으며 무게와 크기는 동급의 다른 제품에 비해 30% 정도 줄어든

것이 특징이라고 국제전기측은 설명했다. 이 제품은 또 별도의 냉각팬이 없는 자기냉각 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정류기의 작동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진단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국제전기는 앞으로 별정통신사업이 활성화 되면 소용량의 교환기 및 정류기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우선 대우통신과 삼성전자·LG정보통신 등 교환기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개발한 제품의 판매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